

[나의 초보 양육기 5]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성도’ 지켜보는 즐거움

최홍관 집사 / 2002 / 페이지 수: 2

일대일 양육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어려움과 당황했던 기억이 한두 가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1994년에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일대일 동반자반과 양육자반을 거쳐 95년도에 처음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양육을 하게 된 분들은 젊은 부부였는데 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등) 일대일을 한 것 같아서, 과연 그분들이 무엇을 얻었을까 라는 송구스런 마음과 쓸데없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보니 온누리신문에 파송 선교사로 이름이 나온 것을 보고, 좁고 낮은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번 양육할 때 마다 즐던 동반자

첫 번 양육을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몇 분의 양육을 끝내고 또 어느 부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되시는 분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열심이신 것 같았는데, 약 3주가 지나면서부터 공부시작만 하면 완전히 취침시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과 제가 잠을 좀 깨울려고 하면, 조금 깨는 척하다가 다시 잠이 들고 심할 때는 아주 미약한 코고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신기하게도 눈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공부하는 척, 언제 졸았냐는 듯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졸긴 했어도 한번도 빠지는 법 없이 공부시간에는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즈음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생의 귀중함을 갖고, 동반자와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된 저였기에 조금은 화가 날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 수용하며 일대일을 마쳤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인내심을 허락하셨고, 동반자들 뿐 아니라, 나에게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확신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러나 하나님의 그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일대일을 마치고 나서 그 동반자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을 만지셨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두달 정도 지나서 만나보니 그 동반자는 아주 많이 달라져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좋아서 제게 미안했었노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일대일 양육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제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 주실 사랑의

하나님과, 그분의 저에 대한 주관하심을 깨닫곤 합니다. 이제 일대일은 동반자에게는 물론 이겠지만, 양육자인 제게 더 큰 은혜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어떤 분의 요청으로 다른 교회의 분들과 일대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분은 아주 초보적인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임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진보를 보이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지 지금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실한 분들로 이끄실 것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대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 출처 : 큐티와일대일**